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주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입당 : 291 파견 : 55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시편 34, 2-3, 4-5, 6-7, 8-9)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돌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 The angel of the Lord will rescue those who fear him.

(Psalm 34:2-3, 4-5, 6-7, 8-9)

-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shall be ever in my mouth. Let my soul glory in the LORD; the lowly will hear me and be glad. ◎
- Glorify the LORD with me, let us together extol his name.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and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
- Look to him that you may be radiant with joy, and your faces may not blush with shame. When the poor one called out, the LORD heard, and from all his distress he saved him. ◎
-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delivers them. Taste and see how good the LORD is; blessed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

거룩한 시간 (1)

하루의 시간 시간마다 제 특성이 있다. 그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뚜렷이 느껴지는 것이 셋 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는 낮이 그것이다.

아침

다른 시간이 오기 전에 아침의 씩씩한 얼굴부터 빛난다. 아침은 하나의 시작이다. 매일 아침마다 태어남의 신비가 새롭다. 생명을 젊게 하는 잠에서 깨어나면 심신이 맑고 힘이 난다. 사는 맛이 난다. 삶 자체가 절로 기도가 되어 삶을 베푸시는 분께로 올라간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제가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나이다. 저의 존재와 모든 소유 너무나 고맙나이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충동으로 우리는 하루의 일과에 임하게 된다. 그것도 기도가 된다. “주님, 당신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나이다. 이 하루가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소서.” 아침의 거룩한 시간이란 이런 것이다. 생명이 잠에서 깨어 스스로를 느끼면서 조물의 꾸밈없는 감사를 드린다.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힘으로 새로운 창작과 새로운 일과에 임한다.

그러고 보면 하루의 첫시간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그 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하루를 시작없이 시작할 수도 있다. 아무 생각도 의향도 없이 그날에 그저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도대체 “하루”라는 날이 아니라 아무 뜻도 모습도 없는 시간의 한오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라는 날은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 하루는 뚜렷한 의향을 요구하는 하나의 일이다. 하루는 나의 일생이기도 하다. 나의 일생도 하루라 할 수 있다. 거기에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한다.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7월 6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Sisters of the Pious Schools 선교후원

인도 오디샤 지역에 위치한 Sisters of the Pious Schools는 가난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복음선포와 교육선교를 수행하는 국제 수도회입니다.

이번 주일 인도에서 선교 중인 로즈마리 수녀님이 본당을 방문하여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주시며, 수도원건립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모인 후원금은 LA대교구 선교국을 통해 전달됩니다.
기도와 따뜻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성전 건축 기금 모금 올리브유 판매

엘바인 평화의 모후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을 위하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바티칸 공식 인증)을 판매합니다.

이 제품은 2025년 희년을 기념하여 고(故)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올리브 오일입니다.

금액 : 2병 1세트 \$ 70

문의 :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로 ☎ 310-404-1607

▶ 사목협의회 임원 인사 공지

우리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 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남성철 베네딕도 형제님을 총회장직에서 해임합니다.

이윤희 율리아 자매님을 서기에서 해임합니다.

박인식 토마스 형제님을 총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재용 안드레아 형제님을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송호창 요셉 형제님을 교육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인사는 2025년 7월 1일부로 유효합니다.

새롭게 임명되신 임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무실 운영에 대한 안내

우리 백삼위 한인성당은 규모가 작은 본당인만큼, 사무장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강인모 테오도시오 재정위원장님께서 사무실 운영의 총 책임을 맡고, 이윤희 율리아 자매님이 사무실 봉사자로 함께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침은 2025년 7월 1일부로 유효합니다.

효율적인 사무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3,510.00
주일헌금	\$	2,692.00
감사헌금	\$	200.00
합 계	\$	6,402.00

강경예	강순복	권오상	김상기	김선영	김영옥	김옥자
김정숙	남명자	박순진	박진선	박진숙	박토니	반비오
서창호	엄영희	유영숙	이재용	채미정	최미열	홍석인
신순철	황정은					